

문화

■광주비엔날레, 이 작품이 궁금하다



전시장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 5·18 유족과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인 '바리케이드 위에서'

“통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제목은 ‘히틀러’인데 히틀러 사진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제8회 광주비엔날레(3일~11월7일) 전시장을 둘러보는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품는 의문이다. 이번 전시의 일부 작품은 출품작 속으로 기어 들어가거나 천막을 때려야만 제대로 감상할 수 있고, 먼저 작가의 의도를 알고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작품도 많다. 이 때문에 이색 작품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고 감상하면 더 큰 감동을 맛 볼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제1전시실에 들어서면 누군가 나지막히 읊조리는 노래를 들을 수 있다. 산야 이베코비츠가 광주 관람객을 위해 마련한 ‘바리케이드 위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퍼포먼스와 5·18광주민중항쟁 희생자의 사진과 슬라이드 등이 곁들여진 전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시자를 전달해준다. 또 술이나 잠에 취한 듯 전시장에 누워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놀라지 않는다. 공모를 통해

# 천막 안에서 기어 보 그래야 이해가 돼

‘5월의 노래’ 부르는 여성들은 누구  
전시장에 누워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는 마릴린

작가 의도 파악하면 이해 쉬워

참여한 현대무용가들의 퍼포먼스가 곁들여진 티노 세갈의 작품 ‘얼굴로 무언가를 나타내려 하지 말고 브루스, 댄 그리고 다른 이들을 춤추라’(제4전시실)의 일부다. 마이크 켈리의 ‘로즈 호바트’(제1전시실)는 무심결에 지나치기 쉬운 작품이다. 검은 나무로 만들어진 4~6m 크기의 3개의 통 안에 비밀의 영상이 숨겨져 있다. 미로처럼 얽혀있는 통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작은 구멍

을 통해 목욕을 하고 있는 남녀의 모습을 훑쳐볼 수 있다. 관음증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비밀스런 작품이다. 또 9·11테러를 다룬 2001년 9월12일자 각국의 신문 1면을 모은 한스펠트 펠트만의 ‘9/12 신문’(제2전시실)은 도스토프의 설명을 잘 들어야 하는 작품이다. ‘미국 공격 당하다’(뉴욕타임스) ‘새로운 전쟁’(르 파가로) ‘아직 생존



천막에 가린 작품을 보기 위해 천막 속으로 기어 들어가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역사적 사진-위로 걷기’

자가 있다’(이브닝 스탠다드) 등 언론 사별로 월드트레이드센터가 무너지는 동일한 사진을 해석하는 다양한 양상을 엿볼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눈(Noon) 예술상’ 수상자인 구스타프 메츠거의 ‘역사적 사건’(제3전시실) 연작은 사진과 관람객 참여 퍼포먼스, 설치 결합된 이색 작품이다. ‘역사적 사진-위로 걷기’는 거리를 청소하는 유대인을 조롱하는 오스트

리아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위로 거대한 천이 덮여 있다. 이 천 속으로 관람객이 기어 들어가야만 작품을 볼 수 있다. 구스타프 메츠거의 히틀러의 사진 작품인 ‘역사적 사진-히틀러’에는 아아리나 하계도 히틀러의 사진이 없다. 두 개의 철판 사이에 히틀러의 사진을 넣은 뒤 용접을 해 버렸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차가운 철판의 철판뿐이다.

이 밖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는 여성을 담은 사진(제1전시실·안드레 데디에네스의 ‘마릴린이 보여주는 죽음’) 속 주인공은 세계적인 스타 마릴린 먼로이며, 제2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는 뒤집어진 그림은 실수가 아니라 글렌 브라운이 일부러 소녀의 얼굴을 그린 뒤 거꾸로 걸어 놓은 ‘어떻게 찾은 당신과 당신의 특별한 방식들’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도자공예·철보·애니메이션·그린푸드...

## 토요일 예술의 거리엔 없는 게 없다

‘매주 토요일엔 예술의 거리로 오세요.’ 광주 예술의 거리에 ‘문화난장’이 펼쳐진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는 목표로 진행되는 ‘2010 아트로드 프로젝트’의 오픈 행사인 ‘개미시장+’는 토요일 아트마켓인 ‘개미시장 1+1’, 다채로운 공연이 열리는 가야미극장, 프로젝트 카페 가야미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개미시장+’는 12일 오후 3시 오픈행사를 진행하며 오는 12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6시까지 계속된다. ‘개미 시장 1+1’은 기존의 골동품 위주로 진행되던 개미시장을 확대, 도자공예, 철보, 조명, 애니메이션, 그린푸드 등 다양한 아트 상품 외관 20여개가 펼쳐진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팀의 아티스트는 ‘개미시장 액티비스트’라는 타이틀을 걸고 예술의 거리



### ‘개미시장 1+1’ 오픈, 가야미 카페도 운영

상가와 1대 1 매칭을 통해 새로운 아트상품을 개발했다. 예술의 거리에 철판과 사람방 공간도 마련됐다. 고금화랑 2층에 문을 연 ‘프로젝트 카페 가야미’는 상인 반상화, 토코 파피, 전시, 공연 등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가야미’는 ‘개미’의 순우리말이다. 또 매월 중순 예술의 거리 소식지인 ‘페이퍼 가야미’도 발간할 예정이다. 개관 기념전으로 ‘예술의 거리 창작공예 초청전’과 ‘개미시장 액티비스트 아카이브전’이 준

비돼 있다. 거리 곳곳에서는 ‘가야미 극장’도 운영된다. 가야미 극장은 유랑극단 형태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12일에는 카자흐스탄의 손 세르게이와 인나가 출연하는 인형극과 퓨전 그룹 ‘부트머지’의 공연이 열린다. 그밖에 잔치음식과 수수지지미, 다문화 음식, 라테일 등을 나누는 먹거리 장터도 운영된다. 문의 062-224-09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가야금병창 전국대회’ 11~12일 광주문예회관

광주시국악협회(회장 이대후)가 주최하는 2010 대한민국 가야금병창 대제전 및 제7회 가야금병창 전국대회가 11~12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11일 오후 7시30분 열리는 전야제에서는 상예순(광주가야금 연주단 총감독)씨가 ‘최우수상 가야금산조’를 들려주며 서울·부산·대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야금 병창단 50여 명이 가야금 병창 명곡을 선보인다. 또 광주시 무형문화재 문명자씨가 이끄는 문명자예술단이 ‘봄, 여름, 가

을... 그리고 겨울’ 등을 선사한다. 고수는 전남도립국악단원 윤종호씨. 12일 오전 8시30분부터는 가야금병창 경연대회가 열린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신인부, 일반부로 나뉘어 열리는 이번 경연은 아마추어에서 외국인까지 모든 이들에게 문을 열어 놓았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일반부 대상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11일 전야제 공연은 전석 무료 초대. 문의 062-524-83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다문화가정 자녀 독서지원 ‘엄마와 함께... 쑥쑥’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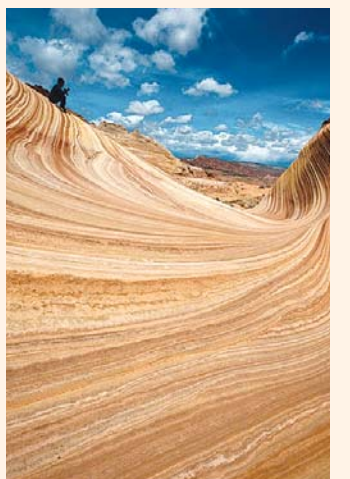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독서교육 교재 ‘엄마와 함께 읽어요, 재미 쑥쑥 동화, 지식 쑥쑥 만화’를 발간했다. 교재 2500부와 음성 해설이 담긴 CD 2만장이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포된다.

이 교재는 5~7세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동화와 만화를 통해 유치원 또는 초등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한글 어휘와 문법, 한국의 문화 등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족, 숫자, 음식 등 생활에서 쓰이는 기초적인 낱말이 그림과 함께 설명돼 있고 ‘공쥐와 괘뿔’ ‘해님과 달님’ 등 전래동화 20편, 주제별 단편만화 20편 등이 2권의 단행본으로 나누어 실렸다. /연필뉴스

## 美 서부 장엄한 자연 속으로

### 서준범·김남국 사진전 서울 ‘카페 벤 제임스’

카메라와 고물자동차 그리고 작은 텐트가 함께였다. 그들의 영글에 담긴 건 사막, 화산, 호수, 숲까지 천의 얼굴을 가진 광활한 대자연. 여수 출신으로 현재 울산대의 과대학 교수(서울 아산병원 영상 의학과)로 재직중인 서준범씨와 김남국씨가 사진전 ‘빛내림과 웨이브, 풍경 사진들의 꿈 : 미국 중서부 대자연’을 갖고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제6회 서울와우 북페스티벌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12일까지 서울 홍대 인근의 카페 벤 제임스에서 열린다. 5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길을 함께 여행하며 27개 미국 국립공원을 둘러본 두 사람은 숨겨진 보석같은 미 서부의 장엄한 자연을



서준범 작

담은 40여점의 사진과 영상 작품을 선보인다. 그들의 사진 속에는 눈이 부시도록 푸른 하늘과 어우러진 끝없는 사막이 있고, 깎아지른 거대한 절벽이 위용을 드러낸다. 또 눈부시도록 새하얀 눈발에 외로이 서 있는 한 그루 나무에서는 쓸쓸함도 묻어난다. /오광록기자 kroh@

www.geumsoojang.com

## 내집같은 편안함!

# 광주에는 금수장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객실요금 4만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 없습니다. 4-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리합니다.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 차편 15분 거리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거리, 충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분거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전 객실 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 등 다양한 부대시설

편안합니다. 한담 한담 직접 케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의 주요 고객

## 우천해수욕장 매일 운행

# 슬로시티 증도

## 서틀버스 운행 (최신형 관광버스)

● 당일서틀 : 15,000원(주중) 왕복 / 18,000원(주말) 왕복

**증도 1일 체험관광** ※ 주말이용시 3천원 추가

상 품	요 금
서틀버스+엘도라도 해수사우나	20,000원
서틀버스+소금동굴(힐링센터)	20,000원
서틀버스+소금동굴(힐링센터)+해수사우나	25,000원

● 1박2일 엘도라도 리조트 숙박 116,000원(주중) 15평 1인요금 ●  
● 1박2일 엘도라도 리조트 숙박 144,000원(주중) 26평 1인요금 ●

전라남도 신안군 KTX 한국철도공사 **엘도라도리조트** 남해관광 광주 062)225-5544 서울 1566-2233

남해관광(09:10) - 광주역(09:20) - 광천터미널 맞은편(09:35) - 상무역(09:45) - 송정리역(10:10) - 증도(엘도라도리조트)

(계좌번호) 광주은행 : 013-107-019079 (주) 남해관광